



농협 광주본부, 광산구에 '천원 한 끼' 기부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지난 14일 광산구청에 '천원 한 끼'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총괄), 박내춘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박병규 구청장, 광산시니어클럽 이용준 관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옥근 사무처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천원 한 끼'는 고물가시대에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광산구청에서 추진됐다. '천원 한 끼' 식당의 주 판매 음식은 콩나물국밥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1000원에 국밥 한 그릇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광산구와 광산시니어클럽이 지역 사회 후원을 바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광산구 우산동에 제1호 '천원한끼' 식당이 개소해 많은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기림 기자



광주조달청, 장성기업 '매그나텍' 현장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은 16일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김종열 조달청장,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 국장과 함께 장성군 소재 매그나텍을 방문해 혁신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사진)

매그나텍은 실내외에 사용되는 'LED조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직사광과 눈부심은 줄이고 이중복합 방열 구조를 적용, 효율성은 높이는 '빛공해 저감형 LED 투광등' 기구를 개발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고출력 LED 조명에서 발생하는 열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열소재와 커피박(커피찌꺼기)을 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강소기업이다.

김종열 청장은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해 기술력 있는 지역 강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한국평가데이터,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유현상 한국평가데이터 상무, 서영진 부장, 정귀송 호남지사장과 함께 광주·전남에 소재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단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기술평가서 우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평가 부담 완화 △ESG평가보고서 및 안전보건 평가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속성장 도모 △기업정보 DB 서비스 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9년 평가 노하우를 보유한 KoDATA의 기업 서비스를 광주전남의 50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3000개 소속 조합원사가 활용하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유현상 상무는 "기업 평가와 데이터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한국평가데이터와 중소기업의 발전과 위상 강화에 앞장서 온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지속되는 고물가·고임금·고환율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신용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Kodata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전남대학교 '오월 정신 계승' 헌혈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16일 전남대학교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하고 오월 헌혈정신을 잇기 위해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이준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부학장, 윤태우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 약 8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혈참여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다.

이준환 인문대학 부학장은 "오늘 뜻깊은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며 "헌혈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헌혈정신이 몸소 느껴졌다.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액원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44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 전야제'에서 헌혈과 헌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성아 기자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희망풍차 지원물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으로 장성군 북이면의 1가구가 선정돼 300만원 상당의 아쟁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전통악기인 아쟁을 전공으로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본인 소유의 악기 없이 아쟁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꿈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더 많은 위기가정에 희망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실태조사 및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정성아 기자

아이유, 생일 맞아 '아이유애나'로 2억 기부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사진)가 또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자신과 팬덤 '유애나' 이름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16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생일인 이날 자신과 팬덤의 이름을 합친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아동 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대한사회복지회·사랑의달팽이·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네 곳에 각 50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들 네곳은 각각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청각장애인,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곳들이다.

아이유는 이날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해도 한결같이 넘치도록 채워준 유애나(아이유 공식 팬덤명)의 사랑을 담아 모두의 오늘 하루가 파스하기를 바라요"라고 썼다. 그리고 각 후원증서도 첨부했다.



아이유는 데뷔 직후 '아이유애나'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꾸준한 선행을 실천해왔다.

특히 자신의 생일과 데뷔일 등 특별한 기념일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적시적기(適時適期)에 맞는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쾌척했다.

지금까지 아이유가 기부해온 금액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6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편 아이유는 현재 '2024 아이유 HER 월드투어 콘서트'를 들고 있다. 오는 25-26일 홍콩 아시아월드-아레나(Asiaworld-Arena)로 공연을 이어간다. 뉴시스



무협 광주전남본부 '통관 관세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전남 수출기업 맞춤형 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수출 중소기업에 유익한 통관 및 관세환급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지역 기업들의 빠른 이해를 도왔다. 수출통관 및 원산지증명, 물류비에 따른 원가(물품 단가)산정 노하우, 수입신고 절차 및 관세납부, 관세환급 및 간이정액환급 요건 등이 다뤄졌으며 이후 신청기업들과 1:1 컨설팅을 통해 업체별 특성에 맞춘 개별상담도 제공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 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 사랑의열매, 기획사업 배분금 전달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는 16일 '2024년 기획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 사랑의열매 나눔문화관에서 진행됐으며 박흥철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19개소의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배분금은 사회복지중증자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위해 12개소에 9300만원, 기회의 격차완화 지원사업으로 7개소에 6500만원 총 1억5000만원이 기획사업비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중증자역량강화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배분금은 5억3000만원에 달한다. 정성아 기자

블랙핑크 제니, 팬덤 '블링크' 이름으로 1억 기부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가수 제니(사진)가 블랙핑크 팬덤 '블링크(BLINK)'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15일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 따르면, 제니는 조부모의 땅을 찾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국내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건축을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쾌척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해비타트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 '로템나무 국제대안 학교의 건축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로템나무 국제대안학교는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터전이다. 그러나 단체 생



활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 환경으로 건물 건축이 시급하다.

한국해비타트는 "제니가 팬클럽 블링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학교 건축에 함께해 준 데 감사하다.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니는 현재 개인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ODD ATELIER·OA)를 통해 다양한 활동 중이다. 최근 미국 최대 패션 행사 '멧 갈라'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반기 중 솔로 신곡을 발매할 예정이다. 뉴시스